

GOOD NEIGHBOR MINISTRY

Vol. 110 / Oct. ~ Dec., 2019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December 2, 2019

반짝이는 빛으로 장식된 거리와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선물입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른이나 선물을 받으면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부모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생업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때가 많아서 주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두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 온 땅에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The streets adorned with sparkling lights and beautifully flowing carols make us happy as we move toward Christmas. Christmas is also the season of giving and receiving gifts. Everyone, like children and adults, is pleased to receive a gift. The reason why the presents make us so happy is usually the thoughtfulness and effort behind the gifts.

God has given us many gifts. He gave us life and gave us breath. He gave homes, parents, and children. He gave us livelihood and the church. But the most precious gift God has given us is his only-begotten Son, Jesus Christ.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Beloved! God has blessed us with many special gifts so we can live fully for him. However, in all honesty, sometimes we get tired trying to live the Christian life. During this Christmas season, I pray that we remember the grace of God who generously gave His only-begotten Son despite our transgressions and hope that with faith, we can continue to serve our neighbors as the messengers of His love.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New Year!

With gratitude,
Joon L.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Merry Christmas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닐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닐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역」입니다.

Coming Events

1/3/2020(금) 11:00 AM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
포트리 배다니 교회

6/20/2020(토) 7:30 PM
창립 21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은혜에 대한 보답

저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로원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봉사를 다녔었던 각 양로원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들의 얼굴 또한 눈에 선합니다. 저는 주로 미국인 양로원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양로원에 계시는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미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여서 믿음도 뜨거웠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봉사하러 가서 옛 찬송을 부르면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외워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의 현실은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갈 수 없고 모시고 갈 사람도 없는 형편이며, 미국의 교회들이 사양길이라 그런지 인근의 미국교회에서는 노인들을 찾아오거나 목사님이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인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일 년 내내 예배 한번 드릴 기회조차 없고, 찬송가 한 곡을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근처의 미국 교회들은 목사님이 없어서, 한인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인 교회 두 곳을 맡아, 주일에 두 번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한인 양로원들은 한인교회가 주위에 많아 여러 교회에서 직접 찾아와 예배도 드려주고, 목사님도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낯선 곳에서 목숨까지 바치며 전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서 은혜와 도움을 베풀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6.25전쟁 때에도 자녀들을 한국 전쟁에 보내 희생을 당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한국전쟁에 보냈으나 그 전쟁에서 사망하는 슬픔을 견디어 내고, 그 외아들이 죽은 나라 한국에서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는 그런 사연을 잡지에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봉사하는 정신병동이 있는데, 그곳에는 심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계신 한 분이 저희에게 현금 40불을 주시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성금을 주셨습니다. 정신과 몸이 온전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 주셨는데 그중 9명은 기쁘게 가던 길을 그냥 갔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로 나아가 은혜에 감사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혹시 가던 길을 가버린 아홉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보답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이 그 은혜의 보답을 저버린다면 어찌 기독교인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받아왔던 은혜들에 보답하



아 기 예 수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 아직도
열지 않으셨나요?
쌓아 두셨나요?
발신인의 이름이 아리송해
되돌려 보낸 것은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도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도 아닙니다

나눌수록 넉넉하고 따스한 보물
여는 순간 영혼이 뜨거워져
온 세상이 사랑으로 불이 붙는 선물

알아보지 못해 옷장 속
감추어 둔 것은 아닌가요?
포장도 없고 장식도 없어 수취인불명으로
폐기처분 한 것은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속에도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도 아닙니다

영혼의 눈을 크게 뜨고 올 크리스마스
꼭 열어 보시기를
빛나는 그 이름 품어 보시기를

Merry Christmas

김 은자 권사/시인

는 마음으로 저는 미국인 양로원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머님에 대한 은혜라 생각하면 보답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가기를 권면합니다.

이 문 웅 장로

Buckingham at Norwood(1st Fl.)

Sunrise of Cresskill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at Tenafly

A Season of Gratitude Through Mourning

We go through different seasons in life. As the author of Ecclesiastics can attest,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for every matter under heaven: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pluck up what is planted.” (Ecclesiastics 1:1,2).

For me, I have personally been in a season of “mourning” this autumn-season, and it’s been good. And necessary. I don’t quite know how and where to begin, but I’ll try my best to explain.

At the beginning of September, I joined a women’s Bible study on the Book of Job at a local church. If you’re not familiar, the reader learns that Job, a “blameless and upright man” in the eyes of God (Job 1:8), loses nearly everything and everyone near and dear to him- his children, his health, his possessions and even his belief in a “fair” and good God. His friends judge him, and when they’re not criticizing him, the reader is left to hear the unending pleas of a desperate man without much hope wanting to die. True, Job never curses God, but God himself, must ultimately come to Job’s rescue and set things right. He answers Job, restores his health, blesses him with more children and wealth, and his friends stand corrected.

To be completely honest though, while reading Job, I felt somewhat uncomfortable by Job’s state of desperation. “Job, it’s true you don’t deserve the hardships you’ve received, but why are you going on and on about your misery?” was what I was thinking to myself. And yet, the Lord had a purpose for having me study Job at this very season in my life. He was personally telling me, “Maria, it’s okay to mourn,” and I felt His voice in the middle of an exercise class, of all places. As the instructor told us to do ten pull-ups, tears started to well-up in my eyes, and I had to excuse myself.

You see, at the age of ten, I fell down at church and fractured my arm. Although falls are quite common for children, this incident caused me to be hospitalized at months at a time for about five years due to complications, and my childhood was nothing close to being “normal”. Of course with everything that is tragic, Jesus wraps us up in His arms and pours out His grace in teaching us his reasons, but without going into deeper details of my life since this would take me many more pages to explain, I saw my disability as a part of “*my lot*” and never dared to complain to God about my accident and its affects. Rather, I saw it as an opportunity to come up with creative ways to accomplish tasks that were mundane to everyone else such as typing on a keyboard and tying shoelaces with one hand. I learned to rely on an all-knowing and all powerful God early on in my life, and Philippians 4:11 of “being content in all circumstances” was a verse I knew by heart.

And yet, it was in the middle of gym class where I was “called” to be completely open and bare before God in telling

Him that no matter hard I can try, I would never be able to do a pull-up. And as a running faucet, all the years of frustration and sadness I’ve been holding in my heart that I was unable to verbalize came pouring out, “Lord, I’m tired of losing my balance and falling down. I’m sad that I’m not able to swim in a straight line and need to worry about scaring others with my scars. I’m exhausted from working so hard so that people would not treat me differently (and so on) because of my arm. “ These thoughts came out from left field, but He let me grieve. Actually, I think He wanted me to grieve. This “episode” lasted only a few minutes, but it’s changed me. I was always aware that the Lord grieves with us as in the way he cries with Mary and Martha at the death of Lazarus, but at that moment, I felt His heart mourning with me. He understood my sadness and felt sad, too. He knew my pain. I wasn’t even aware that I was holding on to my many burdens, but I felt the freedom to express my sorrows and discontentment without being judged by Him.

And since that time at the gym, I’ve come to love more deeply my Jesus who is not only our eternal King but also a “man of sorrow who is aquatinted with grief” found in Isaiah 53:3. I’ve come to understand why Jesus calls those who are mourning, “blessed” because they will indeed be comforted by Him. (Matthew 5:4) And similar to Job, I’ve had to run to our God for restoration and healing.

In hindsight, I can laugh now at the propensity of the instructor expecting his class to do ten pull-ups. Seriously, who can really do this? Okay, maybe Director Joon Chung, but our God has a sense of humor and speaks to us in the most uncanny ways so that we can understand His great, unconditional love for us. And so I end my words with a message of encouragement: if you’re at a state of mourning, take as long as you need to recover. It’s okay to be sad. And most importantly, may you know that it is He who will lift you up from the miry pit and make you whole again. And for this, we can all be grateful and worship Him.

Maria Kim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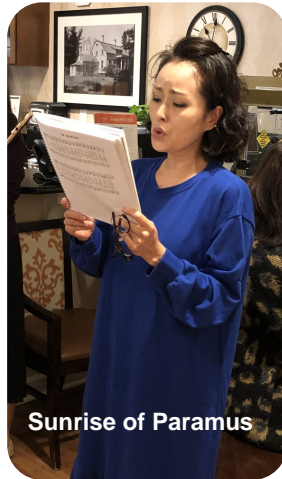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Sunrise of Cresskill



Sunrise of Paramus



CareOne at Valley, Westwood



Chuseok Festival 2019

Photo G



Sunrise of Paramus



Brookdale Emerson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allery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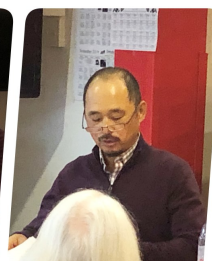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한소망 요양원



Merry Christm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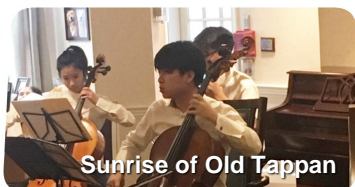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Emerson



Sunrise of Old Tappan



The Gift of Giving

Christmas has always held a special place in my heart. From tree lightings to wrapping presents, the holiday spirit brings warmth and love in the coldest weather. I enjoy eye shopping the decors of Christmas wreaths on people's front doors and being able to sing along to the carols I hear on the radio. One of my favorite traditions is to visit the Winter Garden in New York City with my parents where the palm trees are decorated with green and red lights along with the biggest Christmas tree located in the center. I love seeing people hovering around the food stand trying to warm themselves up with hot chocolate after ice skating in the freezing cold. My heart is warmed every time strangers on the streets wish me happy holidays. In that, what makes Christmas special is the tiny things that remind us to practice gratitude and to be friendly towards others.

However, another factor that makes Christmas exciting is the exchange of gifts. Given that the holidays have been commercialized so much, we sometimes make lists of the things we want in hopes that our loved ones would get the exact present we have wished for. This sentiment, of course, is valid since certain traditions like hanging up stockings have ingrained our desire to receive something valuable. In that, the exchange of gifts is a common Christmas theme that is always heavily emphasized from the media to personal relations.

Many, including myself, may assume that this same kind of spirit will not transition to the drab walls and enclosed spaces of nursing homes. Through my GNE experience, however, I was able to break down this flawed assumption when performing for senior citizens. When I first played Christmas music to them in ninth grade, I was surprised to see the liveliness inside the nursing homes. Some wore Santa hats along with their given Christmas socks as they clapped along to the music. They were just as excited and jovial as any other child opening Christmas presents. The smiles of the senior citizens reflected the Christmas spirit as they sang along to "White Christmas" and "Silver Bells."

The essence of Christmas is bonding over cherished memories through gift-giving. When we give gifts, we naturally expect something in return. Though I do not have any personal relations to the senior citizens I see on Saturdays, I feel grateful that I can give them my love for music and see how much they are excited to hear us play. I am thankful that GNE has helped me abandon that common notion of recipro-



요르단 UPDATES



요르단의 American Academy of Jordan 학교에 4개의 음악 연습실이 생겼습니다. 방의 이름은 Love, Joy, Peace, Patience입니다. 현재 42명의 무슬림 학생들이 violin을 배우고 있고 내년 4월에는 선한 이웃 양상블 학생들의 지도로 일주일간 음악 캠프를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cating presents, especially during the holidays. I have learned that the act of giving without the intention of receiving something in return is much more fulfilling. Seeing the senior citizens smile after we perform has a far more memorable impact on me than if I were to receive a materialistic gift. I believe that this is the true theme of Christmas that some may have overlooked. When we throw away our expectations to receive something, we become much more compassionate and genuinely understand the humbling act of simply giving. I cannot thank GNE enough for giving me this valuable lesson that I can apply to my daily life.

Regardless of the age, the Christmas spirit lives in everyone's heart and more importantly, it is a holiday that teaches us to place more value in opening our hearts rather than the presents. Keeping that in mind, I try to cherish the memories I created with my family. Whether that was singing along to the carols on Lite FM, building a snowman and making angels in the snow with my cousin, lighting the first advent candle, drinking hot chocolate in front of the fireplace and many other precious moments, the love and generosity during Christmas transcends any gift I receive.

Noel Cho/Good Neighbor Ensemble
Northern Valley Regional High School at OT/12th Grade

선교회

소식

선교회 소식

- ◆ 2019년 연말 사역은 12월 23일(월)까지 마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 ◆ 2020년 1월 3일(금) 11:00AM에 포트리 베다니교회에서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30 Main Street, Fort Lee, NJ)
- ◆ 2020년 새해 사역은 1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을 맞이하여 양로원에 증정할 스카프와 모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물 구입을 도와주신 Hana Universal Trading, Inc. (모자), Cuttiee Product (스카프), 정성껏 손뜨개로 무릎 덮개와 털모자를 준비하여 주신 Jo Anna Myung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요르단 음악 선교가 4/4/2020 ~ 4/11/2020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 ◆ 11월 6일 Sunrise of Paramus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참된 교회의 고범석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11월 1일 CareOne at Valley, Westwood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정석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10월, 11월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Restore Fellowship의 John Hanna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11월 24일 선한 이웃 선교회 동역자이신 조관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하늘 소망 교회의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돌보고 섬기며 소망 중에 하늘나라까지 함께 걷고자 하는 귀한 사명으로 시작하는 소중한 교회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 방학 때마다 찬양 사역을 도와주는 선한 이웃 앙상블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Steven Kang 수입: \$200

총수입: \$45,375 총지출: \$24,000(장학금 수여)

선교 회원 동정

- ◆ 최영준 집사님께서 영예로운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2019년 8월 ~ 2019년 10월)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서연희
Kathreen R. McNamara, 정준임
New Bridge Medical Center Psych Ward

수입: \$6,060.00 지출: \$2,041.92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GNE) 요르단 음악 선교를 위한 기도
- 부름이 있는 장소마다 충분한 사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장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김성은 선교사 (아이티)
김재문 / 김유진 선교사 (요르단)
양부환 / 양수정 목사 (파라과이)

† 건강을 위한 기도

양호식 장로(건강 회복), 오알리(소아 당뇨), Soo Park(건강 회복),
문행희 집사(관절), 서울옥 권사(건강 회복), 김종현 목사(건강 회복/
부모 건강), 박미성 자매(교통사고 회복), 서성원 집사(척추수술 회복),
Brenda Cho(관절),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Jeannie Hwang(모친),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지선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이희선 집사(바이올린) 유가영/강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Susan Lee 집사 인도, Josiah Chung 목사(말씀),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이명옥 권사 인도, 홍동기 박사(말씀), 강마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강승연 집사(반주), 박지선 집사(플룻),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Maya Lee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한승은 집사 반주,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최애경 권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Soo Park 선생/Nancy Cho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이윤희 선교사(말씀), 문행희 집사/유성유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김영선 권사 인도, 이혜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Jeannie Hwang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정준임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이문웅 장로(트럼펫)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이문웅 장로(트럼펫)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블 단원 동정

2020 National YoungArts Winners

- Eileen Lee: Classical Music/Violin (Honorable Mention)
- Daniel Son: Classical Music/Viola (Merit)



양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양상블 연주 일정

- 12월 07일(토) 2:00 PM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12월 08일(일) 11:00 PM Sunrise of Cresskill
 12월 14일(토) 2:30 PM CareOne at Valley, Westwood
 12월 21일(토) 2:00 PM Buckingham at Norwood

2020년

- 1월 11일(토) 2:00 PM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Englewood
 1월 25일(토) 2:00 PM County Manor Rehab. & Healthcare, Tenafly
 2월 29일(토) 2:30 PM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Emerson

양상블 행사 일정

- 12월 16일(월) 6:00 PM Christmas Party
 아를라 연합감리교회
 12월 23일(월)~12월 30일(월) Winter Break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20년 1월 3일(금) 11:00 AM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
 포트리 베다니 교회
 430 Main St., Fort Lee, NJ

2020년 4월 4일(토)~4월 11일(토)

선한 이웃 양상블 요르단 음악 선교

2020년 6월 20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